

## 총담관 병변의 감별진단에 있어 내시경적 역행성 담도 조영술 시행전의 내시경 초음파 검사의 역할

서동완\*, 김홍자, 임병철, 명승재, 유교상, 방성조, 이성구, 김명환, 민영일

총담관 병변은 초음파 검사나 전산화 단층촬영에도 병변 자체가 충분히 묘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진단 및 치료를 위해서는 내시경적 역행성 담관조영술(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이 흔히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ERCP는 침습적이며 특히 중증의 췌장염이나 담관염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총담관의 병변이 의심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ERCP 시행전에 내시경 초음파 검사(endoscopic ultrasonography, EUS)를 시행하여 그 임상적 유용성을 알아보려 하였다. 대상은 병력과 혈액 검사, 복부 초음파 검사 또는 전산화 단층촬영상 총담관에 병변이 의심되는 총 31명(남:여=19:12, 평균연령: 56±14세)의 환자들로 그 중 담낭담석 또는 총담관벽의 비후가 있으면서 총담관 담석이 의심되었던 환자가 19예, 총담관 부위의 폐쇄성 황달이 의심되었던 환자가 8예, 담관낭종이 의심되었던 환자가 1예, 그리고 황달이 없이 총담관의 확장이 의심되었던 경우가 3예였다. 대상 환자들에서 EUS를 먼저 시행한 후 ERCP 시행하여 그 결과를 각각 비교하였다. 1. 대상 환자중 EUS 검사상 성공적인 간의 담도의 묘출은 27예(87%)에서 가능하였다. 2. 총담관의 담석이 의심되었고 간의 담도의 묘출이 가능하였던 총 15예의 환자중에 EUS 검사상 5예의 환자가 총담관 담석이 진단되었으며 이 중 ERCP 검사후 4예의 환자만이 담석이 있는 것으로 확진되었다. 3. 폐쇄성 황달이 있었던 8예의 환자들은 EUS 검사상 췌장두부암으로 진단된 경우가 5예, 담도암으로 진단된 경우가 2예, 담낭암에 의한 담도폐쇄가 1예였으며 이 중 ERCP 검사후 4예만이 췌장두부암, 담도암 또는 담낭암의 소견을 보였고 나머지 4예에서는 종양의 원발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만성 췌장염에 의한 총담관 원위부 협착과 감별이 잘 되지 않았다. 4. 담관 낭종이 의심되었던 1예의 환자에서는 EUS 검사상 담관낭종과 담관 합류 이상이 진단되었고 ERCP 검사후 확인되었다. 황달이 없이 총담관 확장만을 보였던 3예의 환자에서는 EUS와 ERCP 검사 모두에서 양성 담도 협착의 소견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총담관의 병변이 의심되는 환자들에서 ERCP 시행전의 EUS 검사는 폐쇄성 황달의 정확한 원인 진단에 도움이 되며, 총담관 담석이 의심되는 환자에서는 담석 유무를 확인하여 ERCP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 환자군을 선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담낭 용종성 병변중 악성용종의 예측인자에 대한 분석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일반외과학교실·해부병리학교실·소화기연구소  
문종호\*, 박용주·조영덕·이준성·이문성·심찬섭·전훈배·허경열·진소영\*\*

목적: 담낭암은 수술 후에도 예후가 좋지 않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최근에 영상학적 진단방법들이 발달됨에 따라 담낭 용종성 병변의 진단률도 증가되고 있으나 용종의 악성 여부를 조기에 감별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에 복강경적 담낭절제술이 보편화됨에 따라 담낭 용종에 대한 진단적, 완치적 요법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후가 좋은 조기 담낭암의 발견율도 증가되고 있으나 수술전에 양성용종과 감별하기는 어렵다. 이에 연자들은 담낭 용종성 병변 중 악성 용종을 좀더 조기에 예측할 수 있는 인자를 알아보기 위하여 담낭의 양성용종과 악성용종을 비교, 연구하였다. 방법: 1995년 8월부터 1998년 7월까지 담낭질환으로 복강경적 담낭절제술을 시행한 환자 중 담낭양성용종으로 진단된 40례와 악성용종으로 진단된 9례를 대상으로 임상적 양상과 복부초음파 촬영술, 내시경적 초음파 단층촬영술, 내시경적 역행성 담도조영술 등 수술전 검사 소견 및 수술후 병리 조직 소견을 후향적으로 비교, 검토하였다. 성적: 1) 양성용종군의 평균연령은 42.3세로 50세 이상이 32.5%이었고 남녀비는 1:2이었으나 악성용종군의 평균연령은 55.7세로 50세 이상이 77.8%이었으며 남녀비는 2:1이었다. 2) 양성용종군에서 위상복부 동통 등의 증상이 동반된 경우는 30%이었으나 악성용종군에서는 77.8%에서 증상이 동반되었고 담낭용종의 발견율은 내시경적 초음파 단층 촬영술이 가장 높았다. 3) 양성용종군의 병리조직소견상 콜레스테롤 용종이 가장 많았고 악성용종군은 모두 선암이었다. 4) 양성용종군에서 담석이 동반된 경우는 7례(17.5%)이었으며 악성용종군에서는 4례(44.4%)이었다. 5) 양성용종군의 용종 평균 크기는 9.9 mm(6-24)이었으며 12 mm 이상인 경우는 9례(22.5%)이었으나 악성용종군의 평균 크기는 14.2 mm(8-27)이었으며 12 mm 이상인 경우는 6례(66.7%)이었다. 6) 양성용종군의 37례(92.5%)는 용종양 용기형이었고 초음파 검사상 간질결에 비하여 고에코성이 경우가 19례(47.5%)이었으나 악성용종군의 5례(55.6%)는 편평성 용기형이었고 고에코성인 경우는 1례이었다. 7)악성용종군 9례중 8례(88.9%)는 점막층만 침범한 조기 담낭암이었으며 4례(44.4%)는 담낭선종내 악성변화가 동반된 경우였고 수술전에 악성용종으로 진단하였거나 의심할 수 있었던 경우는 4례(44.4%)이었다. 결론: 담낭의 용종성 병변 중 50세 이상의 남자에서 증상이 있으면서 담석과 동반되어 있고 병변의 크기가 12 mm이상이면서 초음파검사상 에코가 낮고 편평성 용기형인 경우는 악성용종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담낭절제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